

국외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세계화 시대 국외 한국어 교육의 성격 탐색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 화 숙

Abstract

Yi Hwasook. 2013. 2. 28. **Analysi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broad: Groping for the Scheme for Development in Global Era.** *Bilingual Research* 51, 217-246. This study is grop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LE) in abroad and is searching for the way for the development of KLE. For the purpose of the thesis, the article analyzes the trend of KLE in abroad by period, region, and the topics. The study deals with the five countries' KLE of Asia, Europe, and America in 1980s, and that of Europe in 1990s. In 2000s, KLE of Asia is studied. By the topics, the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education, contents of education, and pedagogy. Through the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KLE is transformed to a practical feature from a scholarly or ethnic education. Adversely, though the KLE of Asia started from a practical view point, it is changing toward the study of Korea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fessionals of the interior communicate with the abroa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LE in the area of the teaching materials exploitation and the teacher train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한국어 교육), Research Trend(연구 동향), Korean Studies(한국학), Education of Ethnic identity(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KRF-2010-413-B00023). 이 글은 2012년 12월 8일 우리말학회·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글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지역별, 시기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수렴해 낼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동서 냉전의 종식,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주민의 증가, 미디어 발달로 인한 문화사업의 확산 등 변화하는 지구촌 사회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현대적 용어이다.¹⁾ 아울러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세계화는 문민정부의 정치적 구상 중 하나로 출발(김은희 2011:6)”하여 현재, 언어와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수단인 동시에 지향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어 교육이 보급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에 사람의 이동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환경도 다변화하고 있다. 조항록(2008)은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중국 유학생의 유입, 한류, 외국인고용허가제, 월드컵 개최와 국가 이미지 변화, 한국 내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 모든 현상은 세계화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

1)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윤식(2001), 한수경(2011), 김은희(2011) 등을 참고하였다. 우윤식(2001)은 ‘globalization’이 상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사회학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특히 1990년대의 사회변화를 분석하는 데 전문적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고 보았다.

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교육 분야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지역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 일반에 대한 연구 동향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들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의 종합적인 경향 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국외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우선 목표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귀납적으로 수렴하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한다.

1.2. 선행 연구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 흐름을 개괄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분야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 논문이 주를 이루며,²⁾ 이들 논의들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과 교수학에 대한 연구의 외연은 일단 파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교육을 정치·경제 등 현실 세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적 전개를 고찰한 논문으로 조향록(2005)가 있다. 태동기의 한국어 교육이

2) <이중언어학> 제47권에는 한국어 교육 연구,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이해 교육 연구, 문법교육방법론 연구, 교사 교육 관련 연구, 대조언어학적 연구, 듣기교육 연구,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연구 동향이 수록되어 있다(강승혜, 2011; 강현화, 2011b; 김선정, 2011; 김영규, 2011; 김정숙, 2011; 방성원, 2011; 송향근, 2011; 이정희, 2011; 정명숙, 2011; 정희정, 2011 등). 이들 논의는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개별 분야의 연구 논문을 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주제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정부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개인적 관심에 의해 소규모의 자급자족형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의 국력 신장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수교와 경제 협력 등 국제 관계의 변화와 현지 국가의 정책, 한인 사회의 발전 등을 동인으로 도약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았다. 조항록(2008)과 임형재(2010)은 1990년대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이주여성, 이주근로자 집단의 등장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배경으로 국내의 한국어 교육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차원의 비정규 과정으로 지원되는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어, 교사 집단의 전문성과 생활밀착적인 교재 개발, 정책 제안 등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담론 속에서 변화된 학습자의 사회적 위치와 교육 환경, 한국어 교육 목표와 방향성, 연구 경향 등을 검토한 논의에는 우인혜(2008), 이영희(2011), 김선정(2011), 강현화(2011a) 등이 있다. 이들 논의는 한국어 교육 외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상을 달리 하는 한국어 교육의 내연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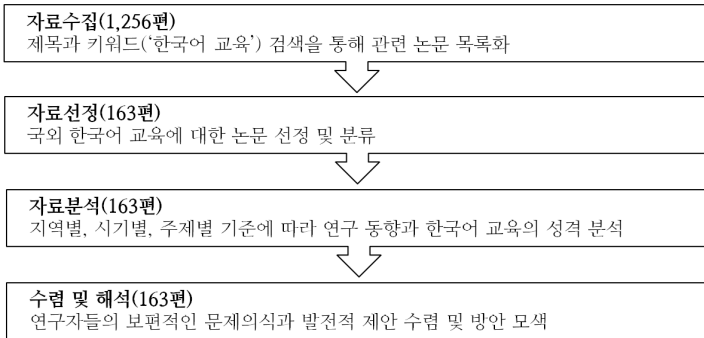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성격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환경 변화와 한국어 교육 성격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분석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해외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과 한국어 교육의 성격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글은 아직까지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지식의 흐름 속에 한국어 교육이 갖는 다면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1.3. 연구 방법

이 글은 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연구 논문을 목록화 하고, 그 속에서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분류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제목과 키워드에 함께 ‘한국어 교육’이 포함된 학술 논문을 검색하여, 중복 등록된 것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자료집을 제외한 1,256편(2012년 10월 1일 기준)을 논문제목과 저자, 학술지, 발간년도, 주제어를 중심으로 목록화 하였다. 이 논문 중,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주제로 한 논문 163편을 분류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 글은 아래 <그림1>의 설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³⁾



<그림 1> 연구 설계

3) <그림1>과 같은 연구 설계는 강승혜(2003)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든 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필자도 선행연구의 방법을 빌려 활용한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논문은 주로 ‘현황’, ‘현황과 과제’, ‘현황과 문제’, ‘현황과 발전 방안’, ‘현황과 전망’ 등의 제목을 가진, 이른바 ‘현황류 논문’들이 많다. 기존 연구에서 ‘현황류 논문’에 대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연구이거나, 아니면 매우 좁은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윤희원, 2006:8; 강현화, 2011a:384)”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외 지역의 현장과 학습자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보편적 문제의식을 탐색하는 데, ‘현황류 논문’이 광범위한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강현화, 2011a; 왕연, 2010; 최정순·윤지원, 2011; 강승혜, 2003). 이들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국외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2.1. 지역별 한국어 교육 연구의 분석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의 30개 나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연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아시아인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몽골, 베트남 등 12개국이 포함된다. 다음은 유럽으로 러시아, 독일, 터키를 비롯해서 10개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아메리카의 3개국과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문들이 있다. 한국어 교육 현황이 연구된 지역별 나라들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지역별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

지역	나라
아시아(12)	대만(2), 말레이시아(2), 몽골(6), 베트남(4), 우즈베키스탄(4), 인도(3), 인도네시아, 일본(24), 중국(46), 카자흐스탄(2), 키르기스스탄, 태국(7)
유럽(10)	독일(4), 러시아(12), 영국(2),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터키(5), 폴란드(2), 프랑스(3), 핀란드, 헝가리(2)
아메리카(3)	미국(19), 브라질, 캐나다
오세아니아(2)	호주(5), 뉴질랜드(2)
아프리카(3)	이집트(2), 요르단, 모로코

위의 <표1>을 보면 ‘아시아 > 유럽 > 미국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의 순으로 연구의 양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163 편의 대상 논문을 분석하여 지역별 연구 동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1.1. 아시아 지역

아시아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외 지역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까지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던 것이, 2000년대 이후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교수법은 물론, 문법과 문화 등 교수학습과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 영역으로 주제가 확대되고 있어 연구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30%)과

4) <표1>에서 ‘지역’ 뒤의 () 속에는 포함되는 나라의 수를 제시하였고, ‘나라’ 이름 뒤의 () 속에는 그 나라의 한국어 교육을 연구한 논문의 편수를 제시하였는데, 연구 논문이 1편인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나라이름은 논문 제목에 명기된 것과 달리 논문을 읽은 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한 나라로 분류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대양주→뉴질랜드, 호주’, ‘아랍국가→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미주→미국’, ‘소련/소련과 러시아/러시아와 중앙아시아→러시아’ 등이다. 논문 제목에 ‘카작스탄’과 ‘캐나다’로 표기된 것은 현행 표기법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캐나다’로 바꾸어 명시하였다.

일본(15%)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로,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언어·문화·인적 교류가 빈번하여 한국어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른 시기에 교포 사회가 형성되어 세대 간에 민족정체성을 전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한데 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기업의 현지진출과 외국인고용허가제,⁵⁾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 한국의 대외적 요인에 의해 현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어지면서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으로 대학 간의 학술 교류와 한국 정부, 한국 기업체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직업 목적 혹은 한국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교양강좌→선택과목→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미 한국학이나 한국어 교육학으로 심화되는 발전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1.2. 유럽 지역

유럽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폴란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연구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터키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현지 한국어 교육자에 의한 연구가 활발한 점이 특징이다. 독일,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이른 시기부터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현지 교수들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동양학→한국학→한국어학→한국어 교육’의 과정으로 관심사가 옮겨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동양학 연구의 하위 범주

5) 2005년부터 시작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요구하고 있어, 대상국(1차 대상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2차 대상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에서 단기(숙성)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는 요인이 된다.

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순수 학문 목적의 수단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연구자들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유엔마즈루(1991)과 빅토르 코쥐마코(2006), 뿌리마코바 따피아나(2009) 등을 참고하면 한국학의 역사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며, 연해주 고려인들이 1910년대에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면서 1930년에 고려사범대학을 세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등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 교육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그 전통이 깊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한국어학은 한국어 교육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동부유럽의 나라에서는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⁶⁾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대부분은 비한국계 학생들로, 학습 목적과 숙달도가 비교적 균일한 만큼 교과 과정에 대한 고민에서 아메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밖에 비정규 과정으로 교포자녀와 주재원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 성격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나, 교포들은 보통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고 있다. 주재원 자녀를 중심으로, 귀국 후 학습 연장을 돕기 위해 비정규과정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교과 교육과 연장선에 있으며, 때문에 국어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2.1.3. 아메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브라질의 현황이 연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아시아계의 이민을 제한하는

6) 동부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위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협력하면서 교육하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조선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적별 이민자수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한국계 이주민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계 2세들의 이중 언어 능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면서 한국어는 미국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소수민족 언어로 공교육에 편입된다. 한국전쟁 후 한국에 파견되는 군인과 선교사, 평화봉사단에 소속된 미국인이 각자의 활동 목적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한편,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발전하면서 순수 학문을 위한 과정으로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학습하는 대학생 집단도 생겨났다. 다양한 학습자 집단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특히 재미교포 2세와 3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이 대학교육으로 이어지면서, 한국학 전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한국계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모국어 유지와 이중 언어 숙달을 원하는 한국계 학습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강좌 운영과 교수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와 브라질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단순 현황 보고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연구를 통해 두 나라에서 교포 사회의 정착과 함께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교포자녀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에 의해 한국어가 이주민의 소수 언어로서 학교 정규 과정에 제2외국어로 포함되어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2.1.4.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호주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 중심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호주 내 학교에서의 아시아 언어 진흥책을 펴고 있다.⁷⁾ 그 영향으로 1993년부터 정규 교과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대학의 강좌로 이어지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양적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포자

7) 호주 내 학교에서의 아시아 언어 진흥책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심상민(2011)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녀들은 호주의 언어 정책에 따라 이중 언어로 한국어를 정규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교포 자녀를 중심으로 비정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말 한글학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지역의 교포들은 이민 온 지 20년 미만이 대부분으로 아직 뉴질랜드 사회에 정착 단계에 있으므로, 가정과 사회에서도 영어 사용이 더 활발한 편인데 교포 자녀들의 한국어 상실이 우려된다.

아프리카 지역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비정규 과정의 시민교육에서 시작하여 대학의 교양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거나 한국어학과가 설치되는 등 발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양과목은 보통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 관광학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광 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한국어 교육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언어 외적 영향으로 특이할 만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이다. 건국초기부터 다민족구성인 나라들로, 이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소수민족의 세대 간 문화전승과 언어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한국어는 각국의 언어 정책의 영향으로 공교육 속에 포함되어 소수언어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개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혹은 이민의 역사와 교포사회 형성, 학문의 수단 등 언어 외적인 환경의 차이는 다양한 성격의 한국어가 교육되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현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 시기별 한국어 교육 연구의 분석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국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현장 연구도 양적으로 팽창해 왔다. 아래의 [그림2]는 연구 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확산되는 양상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시기별 연구 지역 분포

위의 [그림2]를 보면, 시기별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양상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5개 나라에서 진행된 한국어 교육이 연구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2]는 시기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시기별 한국어 교육과 그 연구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시기별 한국어 교육 연구 지역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2012년 (10월)
아시아	일본(4),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4), 중국(10), 우즈베키스탄, 태국	대만(2), 말레이시아, 몽골(5), 베트남(4),	몽골, 일본(2), 중국(7), 태국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2012년 (10월)
			우즈베키스탄(3), 인도(3), 인도네시아, 일본(14), 중국(30), 카자흐스탄(2), 키르기스스탄, 태국(4)	
유럽	폴란드	독일(3), 러시아(5), 영국(2),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2), 핀란드	독일/동유럽 지역, 러시아(5), 터키(2),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2), 터키(2), 헝가리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미국(7)	미국(10)	미국, 브라질
오세아니아		호주(2)	호주(2), 뉴질랜드(2)	호주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위의 [표2]를 보면 ‘2000년대 > 1990년대 > 2010년-현재 > 1980년대’의 순으로 연구의 양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기별 연구 지역의 분포를 참고하면, 2000년 이후 유럽의 한국어 교육 연구가 침체되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한국어 교육 상황과 비례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163편의 대상 논문을 분석하여 시기별 연구 동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2.1.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해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확대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1990년대에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데는 88올림픽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세계에 방영되면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성실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게 된다.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에 한국학이 개설되면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과목의 일부로, 교양강좌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다. 교민 사회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정체성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후스차·오가렉 최, 1988; 연재훈, 1997; 이광정, 1998; 최낙복, 2008; 김종도, 2010 등). 올림픽 개최와 함께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또한 이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나라의 자체적인 필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시기 미국과 호주의 대학 입학시험에는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대학에 한국어 교육이 대학의 일반 과목 내지는 전공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중국계 학생이 참여하는 외국어 교양 강좌로 한국어가 개설되었다. 일본에서는 대학의 외국어와 외국문화 교육의 다양화와 교육 개혁의 영향으로 1990년대 한국어 교육이 대학 교육에 본격적으로 편성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중국 내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아시아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북한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된다. 동부유럽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로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던 것이,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도 올림픽 이후부터이다(부채, 1991). 다만, 1990년대까지 유럽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대부분 한국학과의 관련 속에서 한국어 교육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학을 한국어 교육과 동일시하는 시각도 보인다. 이 시기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 연구를

위한 하위 수단의 성격을 갖거나, 교포 사회의 민족 정체성 유지 혹은 확인을 위한 모국어 교육 성격이 강하다.

2.2.2.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는 국외의 공교육 속에서 일본어, 중국어와 경쟁하게 된다. 해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편입되어 한국어를 교육하는 공교육 기관과 학습자, 목적 등이 세분화된다. 특히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는 것이 국가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어가 이처럼 국외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에 의해 공교육 속에서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교육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이다.

1990년대 이전의 해외 지역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에게는 대학에서의 학문 목적으로, 교포에게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전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학 밖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증가하였으며, 교포 자녀들은 이중 언어 습득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을 보인다. 현지의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 교류의 확대로 이른바, 한류의 영향 또한 한국어 교육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직업 목적 혹은 취미가 목적인 학습자를 위해 비정규 과정의 한국어 과정이 확대되고, 교포 사회에서 한국어는 2세와 3세가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어 이민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진입에 유리한 역량을 키우는 실용적 성격이 강해진다. 특히 2000년 이후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

면서 관광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어는 학문적 요구에 더하여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보편성을 인정받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세계 속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3. 주제별 한국어 교육 연구의 분석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국내의 그것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63편의 대상 논문 중 122편(75%)이 교육 일반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문법, 문화, 문학 등 교육내용 분야가 24편(15%), 교수학습 분야가 17편(10%)이 있다.

해외 지역의 주제별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⁸⁾

<표 3> 시기별 연구 주제 현황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2012년(10월)	계
교육일반 (128)	현황	9	36	67	5	117
	정책			1	1	2
	사례		1	1	1	3
교육내용 (20)	문법			5		5
	문화			3	4	7
	문학			1	5	6
	쓰기			1		1
	어휘(의미)			1	1	2
	발음			2		2
	통역			1		1

8) <표3>의 주제별 분류는 강승혜(2003)과 이를 보완한 강현화(2010; 2011a)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교수학습 (15)	교육과정			6		6
	교수법		4	3		7
	평가			2		2
	교재			2		2
계		9	41	96	17	163

위의 [표3]을 보면 주제별로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일반 > 교육내용 > 교수학습’의 순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등 내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010년 이후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163편의 대상 논문을 분석하여 주제별 연구 동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3.1. 교육일반

국외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는 교육일반이다. 이러한 경향은 강승혜(2003), 강현화(2010), 최정순·윤지원(2011)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일반적 동향이 주로 ‘교육내용 > 교수학습 > 교육일반’의 양적 분포를 보인다는 분석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실태)과 문제/과제”와 같은 대동소이한 제목 속에 특정 국가나 지역의 교육 기관과 학습자, 교사 현황을 비롯해서 교재, 교육 과정, 교육 방법, 역사적 전개 등을 개괄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연구자보다는, 1년이나 2년을 단위로 해외 지역의 한국(어)학 교육기관에 교환 교수나 파견 교수를 다녀온 인문학 관련 연구자, 혹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유학생, 현지의 한국(어)학 교수가 쓴 논문이 대부분이다.

현황을 제외한 교육일반의 하위 주제에는 해외 지역의 언어 혹은 한국

어 교육 정책과 관련한 논문이 2편, 한국어 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가 3편 있다. 정책과 관련한 논문은 러시아와 호주의 언어 정책과 교육 정책의 영향 속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 것이다(서혁, 2004; 한용, 2010).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가 일상생활의 언어가 아닌, 학습용 언어일 수밖에 없는 해외 지역의 특수성과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논의된 것이다. 일본의 한국학교(김정, 1992), 미국의 한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조영미, 2010)을 각각 소개하거나, 소수의 재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을 위한 한국어 캠프 제안(진정란, 2009)이 주요 내용이다. 사례 연구는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주요 내용이지만, 미국의 한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비한국계와 한국계 아동 모두가 대상인 점에 차이가 있다.

2.3.2. 교육내용

현황 중심의 해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문법, 문화, 문학 등의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쓰기, 어휘(의미), 발음, 통역 교육 등 한국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쓰기 교육의 학습 목표와 교육 내용 선정을 논의한 것이 있다(장향실, 2006). 어휘 교육 연구는 터키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자어 교육 사례(유홍준, 2010)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의미 교육에 대한 연구를 정리(박영환, 2009)한 것이 있다. 발음 교육 연구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음 교육의 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오대환, 2003; 이효숙, 2008). 통역 교육 연구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통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통역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강보선·손옥현, 2007).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5편이 있다(성상환, 2005; 이숙, 2008; 손희연, 2007; 오대환, 2007; 도옥순, 2007). 해외에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발달하면서, 한국어 문법 요소에 대한 교육이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반성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제한된 시간의 강좌를 통해 음운 변동과 용언 활용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혹 특정 문법 형태가 반영된 정형화된 문장을 암기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단어를 교체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단조로운 학습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 과정에서는 1·2학년 단계에서 문법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학과 문화 교육은 201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다(권혁률, 2010; 유홍준, 2011; 曾天富, 2003; 나은영, 2007; 서옥란·김송죽, 2012; 임효례, 2010 등). 한국어 교육 과정 속에서 한국 문화와 문학 교육이 갖는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 내용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질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어 한국어 학습을 돕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교육 목표이다. 문화 교육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사례가 연구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 문화관을 관람하거나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 있다.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 터키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연구되어 있다. 보통 문학 텍스트를 강독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한국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대표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함께 습득하게 되는데 이에 적합한 한국 문학 강독 교

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3.3. 교수학습

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중, 교수학습 분야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중심으로 평가와 교재의 하위 영역이 논의되어 있다. 평가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의 한국어 시험과 한글능력검정시험을 소개한 것(Yutani · Yukitoshi, 2002)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현황과 기준을 소개한 것(묘춘매, 2002)이 있다. 교재 연구는 이집트와 중국의 교재 활용 실태에 대한 논의로, 이집트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를 관광 가이드가 한국인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 단계와 의미 맥락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6편으로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김명광, 2008)와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왕단, 2002; 손정일, 2003; 김영수, 2007)가 있다. 특정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 것인데, 중국과 몽골에서는 대학 졸업 후 한국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번역, 컴퓨터 등 실용적인 교과 개발에 대한 논의가 많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최신 실생활 대화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중국의 경우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교과명으로 개설되어 있는 ‘韓國語/韓語/朝鮮語/朝(韓)語/韓國(朝鮮)語 視聽說’에 대해 소개한 것이 있다. 교수법 연구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의 한국어 교수법을 소개한 것이다(이동재, 2003; LE DANG HOAN, 2006; 강보유, 2002 등). 기존에 문법적 언어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던 것이 최근에는 담화 구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외 한국어 교육은 동일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 목적, 연령 등 학습자 변수가 적은 만큼 교육 목표와 내용,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통역을 한국어 교육

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특히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많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한국계와 소수의 비한국계 학습자 집단이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특히 초급의 경우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과 문법 중심의 교수법을 한국계와 비한국계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3.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한국학의 일부로, 혹은 외국어 교육이거나 이중 언어 교육, 모국어 교육, 정체성 교육, 국어 교육 등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특히 교육 공간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목표와 내용은 물론 교육 과정에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밖에서,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집단,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집단,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집단은 해외 지역의 현장 집단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계획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을 연구한 논문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은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발과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이들 논문에 반영되어 있는 현지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반영한 발전적 방안을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1. 해외 한국어 교육 연구자의 연구 지원

해외 지역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2]를 참고하면, 2000년대를 기점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현지의 한국학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특히 축소되고 있는 유럽의 한국어 교육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현지 연구자의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역 한국어 교육 연구자 지원은 지역별 연구의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가 발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학사 출신의 현지 강사에 대한 국내 유학 지원

해외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진의 일부는 학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 특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어에 능숙하지도 않은 학사 졸업생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국어로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설명하는 강의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윤경원, 2005; 조명숙, 2001). 최근 학사 출신의 현지 강사들이 국내의 한국어 교육학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보통 20학점 내외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확립하기 어렵다. 학사 출신의 현지 강사가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유학을 지원하는 것은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연구자의 세대교체와 현지화는 물론, 자생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의 장기 체류 지원

해외에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은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봉사단 등을 통해 1년 내지 2년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원의 교체가 잦기 때문에 현지 교원과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과 교재를 수정 보완하고 최신의 교수법을 동료 교원에게 연수하는 등 파견 교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파견 교원의 장기 체류 지원은 해외의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지 연구자와의 심도 있는 연구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이다.

3.4. 교재 공동 개발과 연구 교류

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연구한 논의에서는 특히 교재 개발과 사전 편찬, 교육 과정 개발 등에 현지의 교육자가 참가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표준 교재 혹은 표준 교육 과정이 개발 되어도 적용되는 곳은 개별 국가이므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지역의 현장 교육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일본, 몽골 등에서는 현지인이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는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최신의 교수법과 교재,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국제학술회의와 토론회, 국제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3.5. 한국어 교사 현지 양성

국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전문 교육자 양성이다.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는 소수의 전문가 교육자가 있을 뿐, 대다수가 비전문가 교육자라는 데에 문제 지적이 가장 많다. 정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자 파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단기 파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체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현지의 학습자 변수를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6. 문법 사전의 다국어 번역

해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학습자용 문법 사전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을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혼자서도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문법 사전이 필요하다. 전자 사전을 통해 한국어 문법 지식을 얻고 있으나, 현지에서 제작된 경우 오류가 많다. 문법 교육에 사용되는 용어조차 통일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법 사전의 다국어 번역은 한국어 문법 용어를 통일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4. 결론

이 글은 세계화를 배경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파악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지역별, 시기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5개 나라의 한국어 교이 연구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럽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연구되던 것이, 200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제별로는 교육 일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현황 중심으로 서술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학문적 혹은 민족 교육의 성격에서 실용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은 1990년대까지 동방학 혹은 한국학의 일부 영역으로 한국어 교육을 인식하였다. 이 시기 교포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정체성 확인을 위한 민족 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직업, 취미, 교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급증했으며, 교포들은 이중 언어 능력을 갖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은 실용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한국학 또는 한국어 교육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어 교육자의 연구 지원, 학사 출신의 한국어 교원의 국내 대학원 유학 지원, 파견 교원의 장기 체류 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아울러 교재와 사전 편찬, 교육 과정 개발에 현지의 한국어 교육자 참여를 통해

현지화가 가능하도록 공동 개발과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문법 사전의 다국어 번역 역시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연구의 질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보선·손옥현(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통역교육 연구-베트남에서의 통역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5쪽~175쪽.
- 강보유(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 교육> 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9쪽.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사·학습자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제47집, 이중언어학회. 687쪽~712쪽.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 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7쪽.
- 강현화(2010).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연구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5집, 국어국문학회. 39쪽~78쪽.
- 강현화(2011a). 다문화 관련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쟁점, <배달말> 49집, 배달말학회. 375쪽~399쪽
- 강현화(2011b).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453쪽~479쪽.
- 권혁률(2010). 중국 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하여, <한어문교육> 23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31쪽~44쪽
- 김명광(2008).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일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38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0쪽~49쪽.
- 김선정(2011).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659쪽~686쪽.
- 김영규(2011). 한국어 이해 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403쪽~422쪽.
- 김영수(2007).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중인문

- 학연구> 20권, 한중인문학회. 417쪽~435쪽.
- 김은희(2011). 개인이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세계화, <인문학논총> 27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1쪽~131쪽.
- 김정(1992). 일본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Case Study, <이중언어학> 9권 1호, 이중언어학회. 217쪽~233쪽.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331쪽~349쪽.
- 김종도(2010). 아랍국가의 한국어 교육현황-이집트·요르단·모로코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9권 1호,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93쪽~112쪽.
- 나은영(2007).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말라야 대학교(UM)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교육 방안, <언어와 문화> 3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7쪽~143쪽.
- 도옥순(2007). 태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향, <이화교육논총> 17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61쪽~74쪽.
- 묘춘매(200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국어교육연구> 1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49쪽~463쪽.
- 박영환(2009). 중국에서 한국어 의미교육 연구, <비교한국학> 17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145쪽~165쪽.
- 방성원(2011).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591쪽~626쪽.
- 부책(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글> 4권, 한글학회. 225쪽~240쪽.
- 빅토르 코쾨야코(2006).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역사와 미래, <아태연구> 13권 1호,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129쪽~140쪽.
- 쁘리마코바 따피아나(2009).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 1권, 세계한국어문학회. 11쪽~34쪽.
- 서옥란·김송죽(2012).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권, 한중인문학회. 131쪽~149쪽.
- 서혁(2004). 호주의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뉴사우스웨일스 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쪽~173쪽.
- 성상환(2005). 독일어권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모습, <국어교육연구> 16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89쪽~417쪽.
- 손정일(2003).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 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7쪽~237쪽.
- 손희연(2007). 외국어 수업의 사회언어학적 특성과 문법 교육-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예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6권, 한국문법교육학회.

115쪽~139쪽.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육의 대조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263쪽~305쪽.
- 심상민(2011).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의 현황, <한국언어문화학> 8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65쪽~82쪽.
- 연재훈(1997). 영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현황, <교육한글> 10호, 한글학회. 113쪽~140쪽.
- 오대환(2003).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1쪽~144쪽.
- 오대환(2007). 일본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교육> 6권, 한국문법교육학회. 141쪽~164쪽.
- 왕단(2002). 중국 대학교 韓國語科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권 1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19쪽~242쪽.
- 왕연(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6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쪽~238쪽.
- 우윤식(2001). 세계화에 대한 소고, <비교문화연구> 12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91쪽~110쪽.
- 우인혜(2008). 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과제, <새국어교육>, 79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81쪽~309쪽.
- 유엔마주르(1991).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8권 1호, 이중언어학회. 26쪽~41쪽.
- 유홍주(2011).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에서의 한국문학교육-터키 에르지예스대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75쪽~293쪽.
- 유홍준(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 방안: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83쪽~199쪽.
- 윤경원(2005). 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동남아연구> 1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13쪽~139쪽.
- 윤희원(2006).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국어교육연구> 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쪽~29쪽.
- 이광정(199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적 개선안: 북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5권 1호, 이중언어학회. 349쪽~384쪽.
- 이동재(2003). 미국에서의 중·고등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교육> 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5쪽~226쪽.
- 이숙(2008).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 <한중인문학연구> 24권, 中韓人文科學研究會. 363쪽~378쪽.
- 이영희(2011).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

- 5집, 세계한국어문학회. 91쪽~132쪽.
- 이정희(2011). 한국어 교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713쪽~733쪽.
- 이효숙(2008). 일본인의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육, <교육문화연구> 14권 1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79쪽~213쪽.
- 임형재(2010). 지난 10년 ·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32집, 한민족문화학회. 269쪽~299쪽.
- 임효례(2010). 중국의 한국어 문화교육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언어와 문화> 6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쪽~43쪽.
- 장향실(2006).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연구-교수 요목 설계를 위한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32권, 이중언어학회. 325쪽~347쪽.
- 정명숙(2011).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423쪽~451쪽.
- 정희정(2011). 한국어문법교육방법론의 연구 동향 및 과제, <이중언어학> 47집, 이중언어학회. 481쪽~506쪽.
- 조명숙(2001).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19권 1호, 이중언어학회. 77쪽~93쪽.
- 조영미(2010). 북미 지역 내 한국어 마을의 한국어 교육 사례 연구: 미국 콘코디아 언어 마을의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韓國文化人類學> 43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45쪽~90쪽.
- 조향록(2005).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과 특징1-태동과 도약, <한국어 교육> 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9쪽~275쪽.
- 조향록(2008).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어 교육> 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5쪽.
- 曾天富(2003).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과 개선방향, <국어교육연구> 12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07쪽~330쪽.
- 진정란(2009). 재미동포 저밀집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캠프, <외국어교육연구> 23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05쪽~126쪽.
- 최낙복(2008).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 <우리말연구> 22집, 우리말학회. 211쪽~245쪽.
- 최정순·윤지원(2011).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人文研究> 63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쪽~90쪽.
- 한수경(2011). 세계화(지구화) 이론의 모순, <정치와 평론> 8집, 한국정치평론학회. 121쪽~160쪽.

- 한용(2010). 러시아 연방의 언어정책과 한국어 교육 현황, <동유럽연구> 24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61쪽~82쪽.
- 후스차·오가렉 최(1988). 폴란드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글> 201·202호, 한글학회. 339쪽~348쪽.
- LE DANG HOAN(2006). 베트남의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수법 도입 상황, <한국언어문화학> 3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41쪽~54쪽.
- Yutani·Yukitoshi(2002).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론, <국어교육연구> 1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91쪽~319쪽.

이화숙(Yi Hwasook)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712-702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요한관 312호

전화번호: 010-2877-7114

전자우편: kkokkomai@daum.net

접수일자: 2012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3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5일